

# '있을 거 다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묘책만 없네

### 광주 1913송정역시장·대인시장 등 예산 투입때만 '반짝 특수' 전문가들 "새로운 볼거리·먹거리 등 콘텐츠 없이 일회성 그쳐"

광주지역 일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호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 '반짝 활기를 띄었다'가 지원이 끊기면 침체를 반복하고 있다.

2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5%였던 대인시장 공실율은 2022년 18.6%, 2023년 26.9%로 꾸준히 증가했다. 결국 올 현재까지 총 289점포 중 3분의 1인 98곳이 문을 닫았다.

광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대인시장마저 상인들은 '야시장 행사' 때만 잠깐 사람이 몰릴 뿐 행사가 끝나면 발길이 끊기고 있다.

침체 일로였던 대인시장은 2009년부터 예술을 주제로 한 야시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명소를 발돋움했다. 2022년부터는 '남도달밤야시장'을 개최하며 주목을 받았다.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예술인 지원사업 등 17억원을 지원받았고, 2021년엔 '제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인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부문에 선정돼 최대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22일 오후 2시

께 대인시장은 한 낮임에도 대다수의 가게가 문을 닫아 어두컴컴했고, 몇몇 상인들만 오갈 뿐 손님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장 전장엔 지난해 열린 남도달밤야시장 현수막이 빛 반짝 채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상인들은 "대인시장은 허울뿐인 야시장밖에 없다"며 자조했다.

전통과자를 팔고있는 박찬식(52)씨는 "오후 2시가 넘도록 마수결이도 못했다. 평일에는 5만원 벌기도 어렵다"며 "시장 상인들조차 '대인시장은 야시장 아니었으면 잔적이 없어져야 했을 곳'이라고 말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인시장에서 10년째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상길(59)씨는 "관광객들이 야시장 명성을 듣고 대인시장에 와도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아 당황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야시장 이후에는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단발성 행사에 의존하는 것은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1913송정역시장'도 마찬가지다.

2016년 4월 현대카드와 광주장조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재개장한 1913송정역시장은 한때 하루 평균 7000여명이 다

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지원사업 종료와 코로나 여파 등으로 다시 침체됐다.

각종 지원 사업 등으로 하루 최대 1만명이 송정역시장을 찾기도 했지만 상인들은 매년 반짝 효과에 그쳤다고 전했다.

1913송정역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손님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송정역 시장만의 특색을 개발하고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등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일회성 행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처럼 장터광장을 조성하거나 상설야시장을 여는 등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광산구, 상권르네상스 사업단 등과 논의했지만 예산의 한계와 여러 규제 탓에 모두 좌초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활성화는 일회성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한다.

광주시 북구 운암시장은 한 2017년 '맛있는 운암시장'이라는 컨셉으로 5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결국 상인들이 시장을 없애고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을 추진중이다.

오주성 광주경찰서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활성화에 성공한 광주 지역 전통시장은 전무하다"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분석과 계획을 통해 전통시장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문이 닫힌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한 상점에 22일 점포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대인시장의 공실율이 33.9%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재점화'

### 구례 등 지자체 4곳, 설치 계획안 다시 제출...환경단체 반발

십수년간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재점화됐다.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4개 지자체(구례·남원·경남 산청·함양)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설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산동면 온천관광단지부터 성삼재 휴게소(3.6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경남 산청군도 지난해 6월 중산리부터 장터목대 피소 아래(3.15km) 구간에 대해 신청했고, 남원은 지난해 12월 케이블카 설치 사업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다. 함양군도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각 지자체별로 노선을 정해 환경부에 신청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경남지역 134개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2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지리산권 4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계획은 정상 지향 산행문화를 부추기고 반달가슴곰 등 야생 동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기존 탐방로와 연계할 수 없고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구례, 남원, 산청, 함양이 추진했던 케이블카를 부결시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경남도가 추진한 케이블카를 반려했으며, 2022년에는 구례군이 제출한 신청서를 다시 반려했다.

당시 환경부는 4개 지자체(구례, 남원, 산청, 함양) 단일화 노선을 지키지 않았고 반달가슴곰 보호 구역 인근이라는 점 등을 반려이유로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북구 '오치 공영주차장' 개장

### 33면 조성...CCTV 등 설치

광주시 북구가 오치동에 3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오치동 969-3)을 조성해 본격운영에 나섰다.

북구는 22일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오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개장식을 개최했다.

오치동은 인근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돼 주차 여건이 열악해 주민들의 주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북구는 지난해 10월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장 인근에는 가로등과 CCTV, 주차 관리 시스템 등도 설치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나눔 주차장' 사업으로 학교, 공동주택 등의 참여를 유도하며 민관 협업 기반 주차장 공유정책을 통해 108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전남 다문화 출신 초등교사 뽑는다

### 도교육청, 전국 첫 내년 '다문화 인재 전형' 신설

전남교육청은 내년 초등교사 선발 시험에서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 전형을 신설한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2025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시시험부터 지역 단위 임용에서 다문화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 규모는 교육부와 초등교사 정원을 협의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전남에 있는 고교를 졸업하고 광주교육대에 다문화전형을 통해 입학한 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주배경 학생이다.

다문화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초등교사는 이

주 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간 의무근무를 해야 한다.

전남의 이주배경 학생 수는 매년 4.8%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약 5.95%에 달한다.

권태우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는 "전남에서 자란 예비교사가 초등교사로 임용돼,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순환의 교육생태계가 구축돼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봄철 '살인진드기 주의보'...긴 소매옷 입으세요

### 전남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 당부

전남도가 나들이,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예방하기 위해 긴 소매옷 입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난다. 심각한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질 수 있는 감염병이다.

참진드기는 농경지 외 텃밭, 농로, 개울, 산 등

잔디와 낮은 식물로 덮인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이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시킨다.

매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전국 치명률도 평균 18.7%로 높아 4~11월 고위험 시기에 위험군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남에선 최근 3년간 39명이 발생해 15명이 숨졌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95명이 발생했고 그 중 355명이 사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